+ 송재익 · KBS TV기술국

STUDER 장비교육 출장기

영국!

누군가 꼭 가고 싶은 나라를 꼽으라면 둘도 없이 난 영국이었다. 이유는 한 가지, Rock의 고장이니까! 첫 해외출장으로 꿈처럼 런던에 발을 딛게 됐다. "런던, 얼마나 나를 설레게 할까?"

12시간 비행기 속에서 그린 런던은 너무 들뜬 내 마음과 기대를 살짝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생각보다 작은 공항. 마치 우리나라 소도시의 공항 같았다. 주변으로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이방인에게 순순히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수수하게 나와 일행을 맞아주었다. 아담한 모습에 놀라고 다음으로 느껴진 건 시차였다. "아! 시차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야근 끝내고 집에 돌아온 것처럼 몸이 무겁다.

공항을 빠져나와 영국에서 평범한 Premier Inn이라는 호텔로 들어서니 '티보'라는 덩치 좋은 친구가 나와 일행을 향해 다가온다. 이 사람, 티보는 스위스에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막 도착한 Studer사장이다. 사장이 우리를 안내하러 왔다는 점이 대한민국 정서로는 의아했지만, 그들의 사회에선 사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직이 영업을 한다고 한다.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길고 짧은 대화를 나눠보니 상사라는 부담을 갖는 편견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좋아하는 음악이며, 취미에 대한 부분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공통된 부분이 많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쉬움이 남는 사람, 아니 친구였다.

눈앞에 펼쳐진 Studer

Studer 공장으로 향하는 날. 런던은 마치 가을날 같았다. 한국에서 느꼈던 뜨거운 여름은 아련히 묻히고, 저녁엔 쌀쌀함이 감돌았다. Studer 공장을 찾아가는 길은 첫 날 느낀 런던의 어색함과는 달리, "흠, 영국이군" 월요일인데도 마치 휴일처럼 여유로운 풍경이었다.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월요일에는 선뜻 상상이 되지 않는 풍경이었다.

서울의 강남처럼 땅값이 비싸다는 곳을 지나 위치한 studer 공장. 오는 길에 마주한 사람들의 분위기처럼 Studer 주변의 풍경도 편안하고 여유로움, 딱 그 단어로 정의됐다. 우리나라의 도심처럼 빼곡한 아파트나 건물은 그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좀 낯설지만 마치, 작은 성처럼 각자의 공간을 꾸미고 가꾸는 도시의 분위기는 이방인에게 동경의 대상이기 충분했다.

Studer 공장에 도착하여 신분확인을 거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Studer만의 공장이 아니라 Harmon이라는 거대한 그룹에 속해 있는 Studer 믹서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Harmon이 취급하는 브랜드에는 Soundcraft, dbx, digitech, Studer, JBL 등 유명한 오디오 기기가 다양하게 있다. "이게 다 Harmon 것이었다니, 대단하군."

교육장으로 들어가는 복도에는 오래된 Studer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지금은 골동품이라고 여겨지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Studerd의 명기들이 고스란히 그 자태를 뽐내며 우리를 반겨줬다. 한 걸음씩 Studer의 역사를 따라가며 우리의 교육은 시작됐다. 운용교육 위주의 실습으로 시스템 구성과 외관부터 스타트를 끊었다.

Studer 공장에는 많은 룸이 있다. 회의실, 시연회장 등.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방의 이름들이다. 기억나는 이름들을 열거해보면 이렇다. 'St. Pepper', 'Revolver', 'Rubber soul', 'Yellow submarine' 등이다. 눈치 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비틀즈의 음반 타이틀이다. 이 회사는 비틀즈 초창기 때부터 레코더로 이름을 날린 회사다. 대표적으로 1964년 비틀즈가 'S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의 녹음에 J37이라는 레코더 모델이 사용됐다. Studer는 비틀즈 앨범 작업에 자사의 제품이 사용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 역사적 이름들을 방에 붙여 놓은 것이라고 회사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이 끝난 저녁시간도 Studer, 그리고 런던에서의 시간은 항상 새로운 경험으로 흥미로웠다. Studer 공장의 사장인 Ian과 저녁을 먹게 됐는데, 직원들과도 그랬지만 우리와도 친구 같은 분위기였다. 선뜻 맥주 한 잔 하고 저녁 먹으러 가자는 제안에 흔쾌히 따랐고, 우리의 상식에서는 어색하지만 진짜 맥주부터 한 잔 하러 호프집, 이곳의 Pup으로 따라 들어섰다.

신기한 풍경은 펍 안에 자리가 많은데도 사람들은 좋은 날씨를 누리며, 또 담배를 피려고 밖으로 나와 서서 맥주를 마신다는 것이었다. 맥주는 선불, 안주는 잘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펍 문밖에서 당장이라도 어디로 향할 사람들처럼 서서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마신다. 참 신기한 문화였다. 맥주 한 잔과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다. 해리포터의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는 역에서 내려 호텔로 향했다.

여담이지만, 영국의 물가가 비싸다는 걸 체감하는 부분이 교통비였다. 지하철을 한 번 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천원 정도, 그나마 oyster라는 교통카드를 구매하면 2~3천원 정도로 저렴해진다. 그리고 첫 날 공항에서 내려 호텔로 가는 택시비도 Studer에서 내줘서 망정이지 5명이 1시간 남짓 탄 비용이 150파운드!(우리나라 돈 30만원)

손끝으로 만지고 심장이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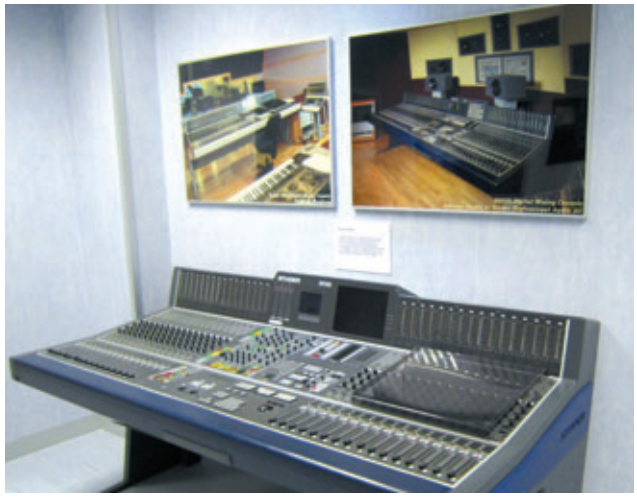
영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답게 아침부터 런던엔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산 쓰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대충 비를 맞거나 옷에 달린 모자를 쓰거나, 뛰지도 않았다. 그만큼 비의 양이 적고, 익숙하다는 뜻이겠지... 그런 풍경조차도 영국을 꿈꿔왔던 이방인의 눈에는 왠지 모를 멋스러움으로 기억에 남았다. 해리포터 기차역에서 potters bar까지 급행열차를 타고 두 정거장만에 도착했다. 역에서 공장까지는 비 맞는데 적응되지 않아 택시를 타야했다.

오늘은 SACD 멀티 트랙으로 실제 믹싱을 하면서 Studer의 이모저모를 살폈다. "아! 역시 Rock의 본고장답다." 실습용 음원이 'pink floyd의 The dark side of the moon'이었다. 대표곡 'Time'을 플레이하며 5.1로 믹싱 할 때와 2ch로 믹싱 할 때 사용되는 많은 기능들을 실습했다. 서울 돌아갈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Studer에서의 교육에 푹 빠져 있을 즈음,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여기서 또 이색적인 기억 하나를 떠올려본다. 교육 자료가 좋아서 일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 보면, 현지 직원 한 분이 들어와 시간이 됐다고 말한다. 그를 따라 대기실로 나가보면 샌드위치가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고, 물론 에스프레소와 커피, 쥬스가 있다.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점. "아! 편하다."

간단하게 점심요기를 한 후, 우리는 Studer 콘솔의 제작과정이 궁금해져, 공장생산 라인을 보여 달라고 현지 직원에게 부탁했고, 다행히 흔쾌히 허락했다. 과연, 눈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또 한 번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역시나 상상과 다른 모습이었다. 정교한 콘솔의 제작라인이기 때문에 흰 가운은 입었지만 영화에서 봤던 에어샤워 같은 시설은 없었다. 그리고, 섬세함의 극치를 달릴 것 같았던 콘솔의 제작 공정은 굉장히 약소했다. "하긴 가정에 한 대씩 있어야하는 가전제품이 아니니까."

콘솔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PCB 제작공정, 몰딩공정, 샤시 제작공정, 조립, 품질검사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뉜다. PCB 공정에선 기계가 저항이나 커패시터, IC칩 등을 자동으로 꼽아주는데 보통 1분에 만개 이상의 파트(부품)를 꼽는다고 한다. 1분에 만개라, 당연히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진다는 말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모두 맞춰진 PCB보드는 라인을 따라 튜브처럼 생긴 관속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는 납땜이 이루어진다. 기계내부에는 납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레일을 따라 PCB보드가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땜을 한다. 완성된 PCB보드는 특성체크를 거쳐 조립공정으로 이동하고 샤시와 만나 최종 완성된 장비가 된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Studerd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법!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검사해보는 깐깐한 품질검사를 마친 뒤에야 완성된 제품으로 납품되는 날을 기다리게 된다.

일과가 끝난 뒤에는 Studer측에서 공연을 보러 가자며 일행의 발을 끌었다. 그들이 소개한 공연은 뮤지컬 'We will rock you'였다. 스토리는 약하지만 퀸의 음악이 좋고 배우들도 노래를 잘해서 매력적인 공연이었다. 공연 내내 연주는 당연이 MR일거라 생각했다. 몇 곡을 들어봐도 원곡과 다른 점을 찾기 힘들었다. 그런데, 반전! 공연의 후반부에 무대 뒤에 자리한 밴드들을 카메라가 비추는 게 아닌가. 올 라이브였다. "세상에! 역시, Rock의 고장!"

Intermission Time에 잠깐 들른 PA석은 더욱 더 놀라웠다. 얼마 없는 장비, 정말 별거 아닌 장비로 소리 참 잘 뽑아낸다는 생각뿐이었다. 사실 MR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이유가 음악의 기타 톤이 퀸의 기타리스트 소리와 똑같아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뮤지컬의 music supervisor가 Brian May(퀸의 기타리스트)와 Roger Taylor(퀸의 드러머)였다. 그러니 깜짝 놀랄만한 사운드가 가능했던 것이다.

뮤지컬을 감상한 곳은 Dominion Theatre라는 곳인데, 이런 극장들이 런던 시내에 참 많이 있다. 오래된 극장들이지만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건재하다. 우리나라에는 단성사, 스카라, 오스카, 피카디리 등 다 없어졌는데 역사가 있는 극장을 보존하는 것이 부러웠다. 공연을 다 보고 티보와 맥주를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뮤지컬의 여운을 나눴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티보와 많은 추억을 남기고 다음에는 서울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런던과 작별의 아쉬움, 시차적응의 걱정과 일상으로 돌아오는 묘한 감정에 휩싸이며, 나의 가슴 한쪽 구석에 런던의 여유로움을 마음에 담아왔다.